

2023년 8-1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8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자동차 업계의 거대한 구도 변화 조짐과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3년 7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2분기 성장률 2.4%, 中 경제 6.3% 성장률 기록

- 미국은 6월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 속에 인플레이 지표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이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에 힘입어 2.4%로 상승
- 일본은 5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日銀(BOJ)이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유로존은 역내 실물지표들의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중앙銀(ECB)의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중국은 지난 6월 내·외수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7.1%)를 하회하는 6.3%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
- 달러화는 7월초 상당폭의 등락세를 보이고, 8월초 피치社의 美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 시사 발언 등으로 강보합
- 유가는 7월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美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80달러대까지 상승하고, 8월 들어서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추가 상승

□ 국내경기 : 6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감소 전환(전월비 -1.0%)한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0.5%)하면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추가 상승(0.1%)
 -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가 상당폭 증가(4.7%)한 데 힘입어 1.0% 증가하고,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감소에도 운송장비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

□ 금 융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8월 초(8월 1일 ~ 11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상승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 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한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중 소폭 상승한 데 이어, 8월초 피치社의 美 국가신용 등급 하향과 무디스의 美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 등의 여파로 추가 상승세
- 원/달러 환율은 7월중 미국의 인플레이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8월 들어 피치社의 美 신용등급 강등과 中 부동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8%, 서비스업생산 +3.5%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1차금속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제조업ICT는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중공업과 경공업에서도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에서 감소한 반면, 도소매, 운수·창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업종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3.5% 증가

□ 고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수출입 : 7월 수출 -16.5%, 수입 -25.4%, 무역흑자 약 16억 달러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도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T업황의 부진 지속과 계절적 요인(하계휴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자동차·기계·가전)을 제외한 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선박 등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중국·베트남 등이 對세계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6.5% 감소

1. 해외경제

□ 미국 : 6월 실물지표 약세, 2분기 성장률 2.4%로 시장 예상치 상회

○ 지난 6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2분기중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대 성장률로 시장의 예상치(1.8%)를 상회

- 산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0.3%)을 비롯해 광업(-0.2%), 유틸리티(-2.6%), 등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0.5%)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4%) 등 감소에도 자동차·부품(0.3%) 등의 증가에도 소폭 증가(0.2%)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46.0)까지 추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55.3)와 미래 기대지수(79.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올해 들어 최고치(109.7)를 기록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전월비 소폭 증가(전월비 20.9만 개)하는 데 그치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 美 경제가 올해 2분기중 소비 둔화(전기비 1.6%)에도 투자 확대(10.8%)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전년동기비 2.6%,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2.4 (2.6)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1.6)	0.2 (3.7)	0.1 (0.4)	0.6 (2.4)	-0.5 (0.2)	-0.5 (1.2)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5.5	3.3	1.2	2.0	4.6
소매판매	18.2	9.7	0.1	1.1	0.0	-0.9	0.4	0.5	0.2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1	0.4	0.1	0.2
실업률(%)	5.4	3.6	3.6	3.5	3.6	3.5	3.4	3.7	3.6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13.5	-201.0	-208.2	-60.6	-74.4	-68.3	-65.5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9.2	47.1	46.7	46.3	47.1	46.9	46.0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2	104.5	105.3	104.0	103.7	102.5	109.7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1.6	109.4	106.8	108.3	107.5	106.9	106.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5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금융완화 정책 기조 일부 수정

- 5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적자 규모가 수입 감소에도 수출 정체 여파로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일본은행(BOJ)이 7월 금융정책회의(7.28일)에서 수익률곡선관리(YCC) 유연화 조치(국채 10년물 금리 상한 0.5% → 1%)로 현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4	0.1	0.7				
광공업생산	5.8	0.0	3.1	-1.7	-1.8	3.7	0.3	0.7	-2.2
민간기계수주	6.0	5.5	-1.6	-4.7	2.6	-4.5	-3.9	5.5	-7.6
소매판매	2.0	2.6	1.3	1.2	2.5	2.1	0.3	-1.1	1.4
소비자물가	-0.2	2.5	0.9	1.1	0.5	-0.6	0.3	0.6	0.0
실업률(%)	2.8	2.6	2.6	2.5	2.6	2.6	2.8	2.6	2.6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6,312	-5,662	-5,185	-920	-759	-436	-1,382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11.7	109.7	108.3	108.9	108.0	108.1	109.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6월 내·외수 지표 부진,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지난 6월 생산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는 등 내·외수 여건의 약세를 시사.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7.1%)를 하회하는 6.3%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연간 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하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3.9	5.6	3.5	4.4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5.1	4.7	4.0	3.8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0.6	18.4	12.7	3.1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7	0.1	0.2	0.0
수출(달러화기준)	29.7	7.1	-6.9	0.1	-5.4	14.3	8.0	-8.0	-13.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5월 실물지표 미약, 역내 인플레 둔화로 통화정책 변화 관심

- 5월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경제체감지수도 하락세가 지속. 역내 인플레 지표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고조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4	-0.1	-0.1				
산업생산	8.8	2.2	0.0	-0.5	-0.2	1.8	-4.4	1.0	0.2
소매판매	5.1	0.9	-0.8	-1.0	-0.3	-0.3	-0.4	0.0	0.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9.3	10.0	8.0	8.5	6.9	7.0	6.1
무역수지(10억유로)	98.5	-342.4	-126.8	-64.1	-2.7	-2.2	12.3	-8.0	-0.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7.2	95.3	99.3	99.3	98.9	98.9	96.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보합 &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7월중 美 인플레 지표 둔화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월초 하락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8월초 피치사의 美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 시사 발언 등 영향으로 강보합
- 유가는 7월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美 원유재고 감소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하고, 8월 들어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에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과 美 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등으로 추가 상승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1일
엔/달러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4.96
달러/유로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949
미 국채 (10년만기)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5
WTI유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2
두바이유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6.8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6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감소 전환(전월비 -1.0%)한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0.5%)하면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추가 상승(0.1%)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3.6%)의 증가에도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등에서 상당폭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1.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6%), 숙박·음식점(0.5%)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0.5%)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3* (0.5*)	2.0 (1.1)	-1.0 (-1.3)	-1.1* (1.1*)	1.1* (0.1*)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4* (3.1*)	-7.6 (4.7)	-9.1 (-0.7)	-7.6* (3.0*)	-5.6* (-1.0*)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7* (3.4*)	-7.6 (5.1)	-9.3 (-0.7)	-7.9* (3.0*)	-5.8* (-1.1*)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8* (0.0*)	6.0 (-0.4)	2.9 (-0.4)	1.9* (-0.3*)	3.5* (0.5*)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3* (-0.4*)	0.1 (0.1)	-1.4 (-2.6)	-0.6* (0.4*)	1.4* (1.0*)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0.5* (2.0*)	1.9 (-2.5)	4.2 (0.8)	-4.5* (3.5*)	-0.6* (0.2*)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9.1* (-0.6*)	12.1 (-4.2)	12.4 (1.2)	6.1* (1.1*)	8.9* (-2.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8	108.3	108.9	108.8	110.2*	109.5	110.0*	110.3*	110.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0.5	100.1	99.2	99.8*	99.6	99.8*	99.9*	99.7*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5	109.4	109.9*	109.4	109.4*	109.8*	110.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3	100.0	99.5	98.9	98.6*	98.6	98.4*	98.5*	98.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4.7%) 판매가 상당폭 증가한 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와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1%) 등의 판매가 소폭 감소에 그친 데 힘입어 전월비 기준 증가폭이 확대(1.0%)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0.2%)의 감소 전환에도 운송장비(1.6%)에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소폭이나마 증가(0.2%)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8.0%) 및 건축(-0.8%) 공사 실적의 동반 약세로 감소 전환(-2.5%)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수입액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를 제외하고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0.6%)

□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를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비 0.1%(전년동월비 2.3%,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 6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하락(전월비 1.5% → -1.3%)하고, 공산품(-1.0% → -0.6%) 가격도 좀 더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0.0% → 0.1%)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비 -0.2%)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2.3 (0.1)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3.9 (-0.1)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0.6* (-0.3*)	4.8 (0.2)	3.3 (0.1)	1.6 (-0.1)	0.5 (-0.4)	-0.2* (-0.2*)	-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0.3* (0.1*)	2.8 (0.3)	1.9 (0.2)	1.0 (0.2)	0.1 (-0.3)	-0.3* (-0.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 지난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과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
(2023년 6월 +5.5조원 → 7월 +8.7조원, 대기업 +3.8조원, 중소기업 +4.9조원)
 - 대기업 대출이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7. 25일)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상환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6월 -0.8조원 → 7월 -1.1조원)
- CP·단기사채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6월 -0.5조원 → 7월 +0.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좀 더 확대
(2023년 6월 +0.4조원 → 7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원화대출	57.2	11.3	71.8	12.2	48.4	7.8	5.5	8.7	1,218.7
(대 기 업)	3.4	2.3	20.4	5.3	20.3	3.4	2.4	3.8	236.2
(중소기업)	53.7	9.1	51.5	6.8	28.1	4.4	3.1	4.9	982.5
〈개인사업자〉	23.7	4.2	16.1	2.0	5.0	0.8	0.2	1.5	447.7
■회사채 순발행	15.1	1.5	-1.8	-1.5	4.0	-2.9	-0.8	-1.1	..
■CP 순발행	8.9	0.9	12.5	1.2	3.0	-3.7	-0.5	0.6	59.5
■주식발행	16.5	1.8	19.6	0.7	3.1	0.3	0.4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7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6월 +5.8조원 → 7월 +6.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6월 +6.9조원 → 7월 +6.0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기조와 분기말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
(2023년 6월 -1.2조원 → 7월 -0.0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가계대출	51.3	9.7	-0.2	-0.3	10.1	4.2	5.8	6.0	1,068.1
■주택담보대출	36.4	6.0	12.2	2.0	21.9	4.2	6.9	6.0	820.8
■기타대출	14.8	3.6	-12.5	-2.3	-11.7	-0.05	-1.2	-0.01	246.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8월 초(8월 1일 ~ 11일) 금리 약보합 &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중 연준의 금리 인상(25bp)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8월초 피치사의 美 국가신용 등급 하향(8.1일)과 무디스의 美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8.9일)에 따른 美 국채금리의 상승세 등으로 소폭 상승
(8월 1일 3.647% → 8월 11일 3.698%, +0.05%p)
- 원/달러 환율은 7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발표와 중국의 부동산 지원 조치 발표 등으로 하락하고, 8월 들어 피치사의 美 신용등급 강등과 무디스의 美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하향, 中 부동산 우려 재점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8월 1일 1,283.8원 → 8월 11일 1,324.9원, +41.1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6월	7월	8.11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68	3.70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47	4.48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74	3.69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3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274.6	1,324.9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8.3	909.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5.8%, 전월비 -1.1%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0.8%), 기타운송장비(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5.9%), 전자부품(-12.2%), 화학제품(-10.4%), 섬유제품(-6.4%), 1차금속(-3.8%), 기계장비(-0.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9%)와 중공업(-5.7%), 경공업(-6.4%)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다소 둔화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3.6%)와 전자부품(9.7%), 기계장비(4.4%), 화학제품(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섬유제품(1.3%), 1차금속(-0.6%)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전환(-1.1%)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99.9)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4%로 전월에 이어 11.3%p 추가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2분기 기준 재고 증가폭(10.0% → 3.8%,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과 출하 감소폭(-6.8% → -2.1%)이 동반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보다 0.9%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3.5%, 전월비 +0.5%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4.5%), 정보통신(-3.7%) 등 업종만이 감소하고, 도소매(1.1%)와 운수·창고(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4.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1%)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3.5% 증가

- 전월비로는 도소매(0.6%), 숙박·음식점(0.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3%)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고, 운수·창고(-0.9%), 정보통신(-0.5%), 전문·과학·기술서비스(-0.6%) 등 업종에서 소폭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7%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7.9%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8	101.6	104.8	108.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4	-9.1	-7.6	-5.6	-1.0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3	102.0	105.3	108.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7	-9.3	-7.9	-5.8	-1.1
섬 유	113.4	2.0	-3.5	-10.1	-7.8	-8.8	-9.8	-10.2	-6.4	-1.3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0	-20.1	-16.7	-10.4	2.3
철 강	496.6	5.2	-8.5	-23.3	-6.5	-2.4	-1.4	-2.9	-2.8	0.7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21.6	-18.7	-15.9	3.6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20.3	-11.5	-12.3	-10.3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3.6	-18.3	-16.7	-4.0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8	-16.1	-17.1	-8.1	1.3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3.7	-4.2	-6.3	-0.9	4.4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6.9	18.7	10.8	-12.9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7.5	-1.0	7.7	5.4
- 중 공 업	-	9.9	1.5	-7.3	-10.7	-7.5	-9.3	-7.6	-5.7	-0.9
- 경 공 업	-	1.3	0.4	-4.0	-5.6	-8.4	-9.6	-9.4	-6.4	-2.3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2	-22.4	-19.3	-15.9	4.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7	113.9	114.9	118.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8	2.9	1.9	3.5	0.5
도소매	193.9	4.3	2.7	1.1	2.8	-0.9	-2.6	-1.4	1.1	0.6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3	12.3	8.4	7.4	-0.9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1.7	-4.9	-4.5	0.5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4.0	-3.1	-5.4	-3.7	-0.5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9.2	9.4	8.3	10.1	3.5
부동산	38.7	2.3	8.0	6.0	4.1	3.2	2.5	3.2	3.7	-2.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3	1.1	1.7	4.0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7	5.4	2.9	3.1	1.3
교 육	73.5	1.5	1.2	0.3	1.1	0.2	-0.6	-0.1	1.2	0.7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1	3.9	3.5	-1.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12.7	0.0	9.2	5.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6	4.6	3.8	8.1	-0.3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7	-4.2	-2.2	1.5	-2.1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6	-0.6	0.6	1.7	7.9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7% 증가

○ 지난 7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0.8% → -2.5%)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4개월 연속 둔화(1.6% → 1.3%)
-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2.8% → -2.0%)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둔화(1.6% →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0.7% → 1.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5% → 5.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1% → 1.4%)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7% → 4.8%)과 정보통신업(5.4% →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연초(2023년 1월 2.9%) 이후 최고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 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8,223	28,432	28,835	28,812	28,686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7	1.3	1.2	1.2	0.7
농림·어업	0.9	4.6	2.0	-1.6	-0.3	2.1	0.8	-0.9	-0.8	-2.5
제 조 업	-0.2	3.1	2.9	-0.8	-1.1	-1.1	-2.1	-0.9	-0.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2.3	2.0	1.8	1.6	1.3
건 설 업	3.7	1.6	0.2	-1.0	-2.4	-1.0	-1.5	-3.0	-2.8	-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2.0	2.0	1.8	1.6	1.3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2.7	1.2	1.5	1.1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6	2.9	2.8	2.8	3.0	2.9	2.6	2.2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7	2.6	2.5	2.6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7월 수출 16.5% 감소, 수입 25.4% 감소, 무역흑자 약 16억 달러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도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T업황의 부진 지속과 계절적 요인(하계 휴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컴퓨터·선박 등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중국·베트남 등이 對세계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6.5% 감소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유가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47.0%)하고,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0.5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2.0%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20.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45.8% 감소한 약 62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 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549 (-13.9)	495 (-14.4)	521 (-15.4)	542 (-6.0)	503 (-16.5)
수 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7 (-13.0)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487 (-25.4)
무역수지	293	-478	-186	-226	-38	-47	-27	-22	11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자동차·기계·가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10개 품목 수출 동반 감소

○ 반도체 : 서버를 제외하고 PC·모바일 등 IT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완료되면서 주문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비메모리에서 IT수요 및 주문량 감소에 따른 파운드리 가동률의 하락, 낮은 메모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자동차** :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產 친환경차·SUV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아세안 등지에서의 특화모델 출시 등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EU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 부품 조달 및 역내 한국產 브랜드 점유율의 상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 및 대기수요 해소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계절 요인에도 수출이 보합세
- **선박류** : 高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수출이 호조세이나, 해양플랜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OLED 수요 회복의 지연과 모바일 수요 하락 및 LCD 생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고급형 모델 판매 비중 확대에 의한 판매 가격 및 단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완제품·부품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22년 4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
- **철강** : 계절적 요인(여름 비수기 진입)과 수요 정체로 인한 시황 침체 지속, 주요 철강재 수출단가 하락 및 가격 약세로 인해 수출이 재차 감소 전환
- **섬유** : 중국 등 아시아 내 한국產 의류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베트남 등 주요 소싱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전년동기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항공유 수요 회복으로 미국 등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 정기보수 영향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국제유가의 전년 동기비 낮은 수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시황 회복 둔화 및 정기보수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 국제유가 약세 및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美·EU 등지의 인프라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산업기계 수출 증가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인한 중동·인도 등지로의 기계 수출 확대 등

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최근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로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전년동기비 하락한 영향에도, 미국 등 주요국들의 주택경기 회복세로 대형가전 및 프리미엄 가전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점진적인 수요 회복과 주요 업체들의 감산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수요 위축과 서버 투자 재개 지연 등으로 인해 낸드·SSD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63.6	40.3	49.3	58.3	15.0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5.6	-1.6	-0.8	5.7	-0.5
선박류	16.4	-20.9	-22.6	1.9	21.1	-26.1	59.2	-47.9	98.6	-30.9
일반기계	4.6	2.0	-3.1	-2.0	5.7	-0.9	7.7	1.5	8.0	3.2
철 강	36.9	5.7	-17.6	-15.8	-5.7	-10.9	-10.7	-8.9	3.1	-10.2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1	-24.5	-23.5	-26.6	-22.3	-24.5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5.0	-18.6	-29.0	-34.8	-40.8	-42.3
섬 유	14.0	-4.0	-18.7	-15.1	-11.0	-12.1	-15.0	-15.0	-2.3	-15.4
가 전	24.0	-7.4	-24.0	-8.5	-7.5	-8.3	-10.3	-13.7	3.3	2.5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2.8	-20.7	-42.5	-34.3	-12.1	-12.1	-15.3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57.6	-73.3	-57.5	-53.5	-33.4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34.5	-41.0	-36.2	-28.0	-33.6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6	-29.3	-7.4	-11.1	-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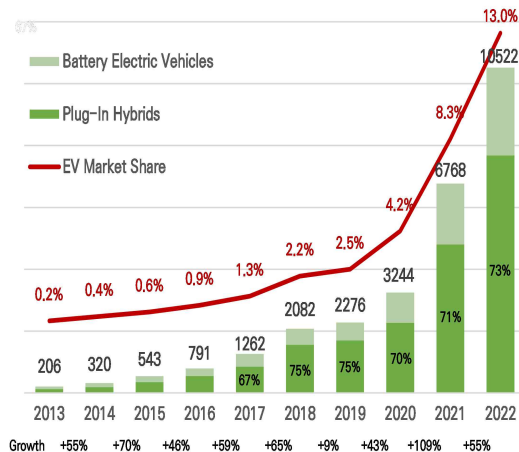
주 :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자동차 업계의 거대한 구도 변화 조짐과 시사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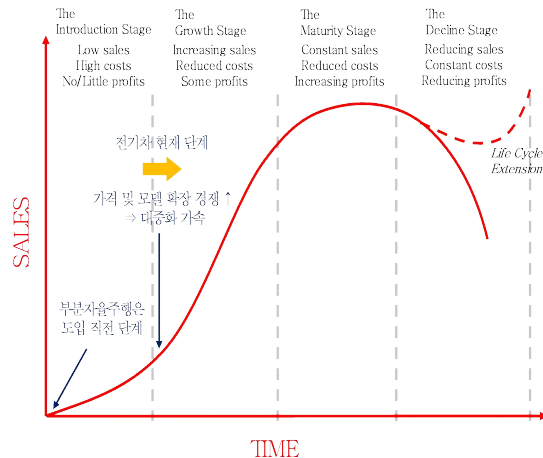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3년 7월)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대중화 초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비중 확대가 예상
 - 국내외 전기차 판매 비중은 중국과 유럽에서 2022년 현재 기준 각각 30.6%, 23.8%를 기록하고, 한국과 미국도 각각 9.4%, 7.3%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 차량 가격 하락과 출시 모델 증가, 기술 진보, 정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특히 부분자율주행(레벨3) 시스템 장착의 본격화로 시장 성장의 가속이 예상
 - 선진국 시장에서 '제한된 구간의 부분자율주행(레벨3)'이 확장될 전망으로, 향후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건은 '전기차와 부분자율주행'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 비중 추이 〉 〈 글로벌 전기차·자율주행 시장 주기 〉



자료: EV볼륨(EV Volumes) 홈페이지.



자료: 비즈니스트리(Businesstree.com).

□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요소와 경쟁 구도 변화

- 전기차는 내연차와 시스템 근간이 달라 내연차는 기계동역학 기술이 근간인 반면, 전기차·자율주행은 전기전자·SW·AI에 기반한 컴퓨터·IT 기술이 근간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핵심 시스템의 자체 개발 능력 배양, 시행착오를 통한 데이터 및 노하우 확보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초기 점유율을 결정
-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미국(테슬라)·한국(현대기아)·중국(BYD)의 점유율이 상승세인 반면, 독일(VW)·일본(토요타)의 점유율은 하락
- 전기차 부상 이후 '약진하는 미·중 對 주춤하는 독·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고, 한국은 적극적인 전환 전략과 대내외 인프라 역량으로 기대 이상 선전

- 미국과 중국은 ICT·SW 기술 및 인력 인프라,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와 전환 혁신 마인드, 정부 추진력 등이 강점으로 작용
- 반면 독일과 일본은 기존 내연차의 강력한 해게모니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전기차 전환의 지연과 소프트웨어·배터리 기술 역량 부족 등이 약점
-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고르게 판매가 호조세인 바, 그 배경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 패스트 팔로워 전략과 적극적인 벤치마킹, 주요 부품 내재화 및 수직계열화, 국내 풍부한 전기전자·배터리 기술 인프라 등














































□ 향후 자동차 업계 구도 전망

- (미국) 테슬라는 높은 경쟁력과 신기술로 업계를 선도하면서 전기차 점유율의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비야디(BYD) 등 전기차 상위 업체들이 전기차 해외 진출 본격화, 높은 가성비 등으로 중저가의 합리적 소비층에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
 - 다만, 주요 시장인 중위도 선진국에서는 브랜드 파워나 딜러망(판매·A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의 단점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이 우려
 - (독일·일본)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과거의 지배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
 -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중국·미국·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추격이 어려운 상황
 - 전기차 개발과 함께 이퓨얼(e-fuel)*의 연료화를 통해서 기존 내연차의 해게모니 연장을 시도 중이나, 경제성과 환경성 제약으로 인해 성공 여부는 불투명
- * 이퓨얼 : 청정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고온고압에서 합성해 만든 인공 메탄올·가솔린·디젤
- (한국)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에서 향후 상당 기간 선전을 지속할 가능성
 - 국내 전자전기·배터리 기술 인프라, 낮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적은 타격,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제적 입지 구축, 내연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전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 우월한 브랜드 파워 및 판매 네트워크 등

□ 결론 및 시사점

-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며, 관련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부상이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전기차 수요 증가와 독일·일본 부진 등의 긍정적 요인이 더 많은 상황
-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중장기 고성장 전망도 새로운 기회 요인
-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내 업체(현대기아)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되나, 독일 브랜드 중심의 국내 수입차 시장 구도가 장기적으로 다변화될 가능성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8.14일)	(8.15일)	(8.16일)	(8.17일)	(8.18일)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7월 고정투자  23.2분기 실질GDP (잠정치)  6월 산업생산(수)  6월 소매판매(수)  7월 소매판매	 6월 산업생산  6월 수출입통계  23.2분기 실질GDP (수정치)  7월 산업생산	 7월 무역수지(잠)  6월 기계수주  7월 경기선행지수	 7월 소비자물가  7월 소비자물가(수)
(8.21일)	(8.22일)	(8.23일)	(8.24일)	(8.25일)
	 8월 소비자동향조사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7월 내구재수주잠  7월 생산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8.28일)	(8.29일)	(8.30일)	(8.31일)	(9.1일)
 6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7월 실업률  8월 소비자신뢰지수	 7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체감지수  23.2분기 실질GDP (수정치)	 7월 산업생산(잠)  7월 소매판매(잠)  8월 소비자물가(예)  7월 실업률  7월 개인소비  7월 산업활동동향	 8월 ISM 제조업지수  8월 고용보고서
(9.4일)	(9.5일)	(9.6일)	(9.7일)	(9.8일)
	 8월 소비자물가  23.2분기 실질GDP (잠정치)	 7월 소매판매  8월 ISM 서비스업지수  7월 무역수지	 8월 수출입통계  7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23.2분기 실질GDP (확정치)	 23.2분기 실질GDP (수정치)
				(9.9일)
				 7월 소비자물가